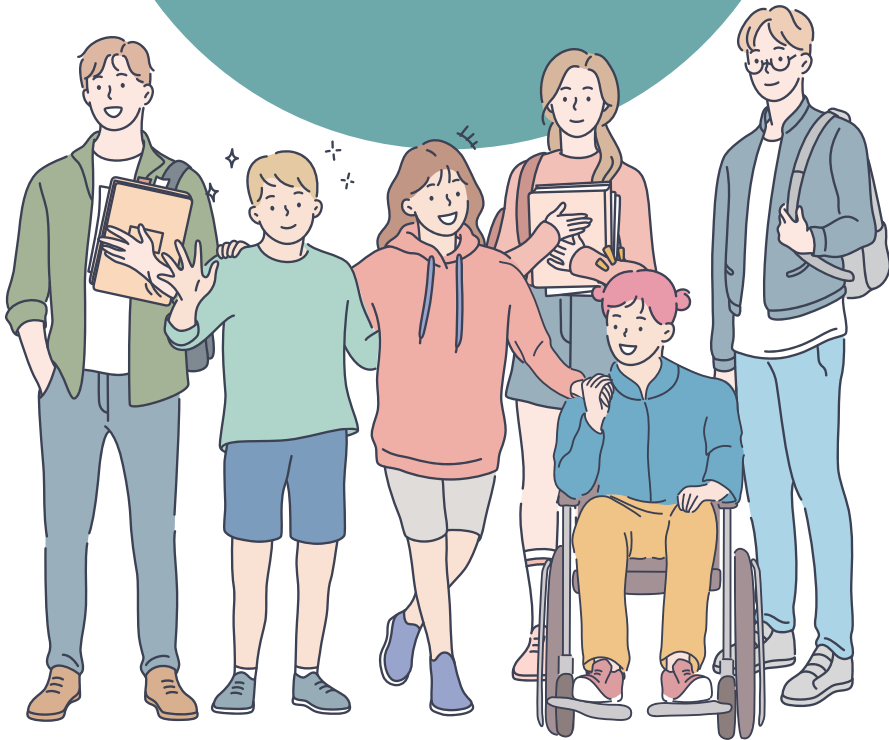




대학 연계 특수교육 봉사활동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경기도교육청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CONTENTS

01 대학연계 특수교육 봉사활동 개요

1. 추진 배경	6
2. 필요성 및 목적	6
3. 관련법령 및 지원 근거	6

02 봉사활동 개념 및 내용

1. 봉사활동 개념	8
2. 기관별 역할	9
3. 봉사자 역할	9
4. 봉사활동 매칭	10
5. 참여자 지원	10
6. 봉사활동 참여수칙	

03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이해와 지원

1. 기본생활·일상생활 지원	14
2. 장애유형별 학습 지원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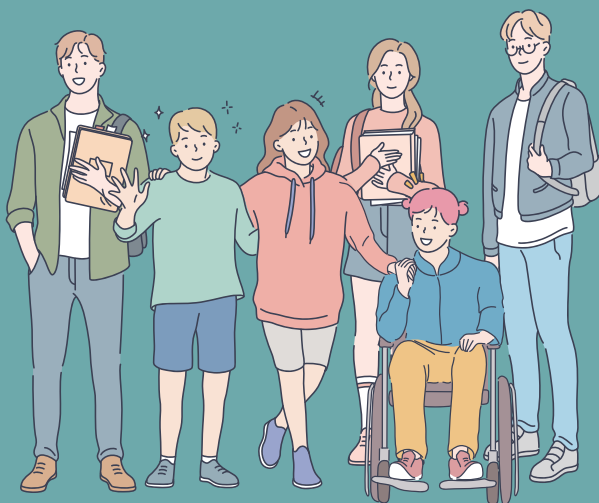
대학 연계
**특수교육
봉사활동**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대학연계 특수교육 봉사활동 (이하 '봉사활동') 개요



01 추진 배경

- 지역사회 특수교육대상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학교, 교육청, 대학 등이 공동 협력하는 마을교육공동체 구현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원활한 교육 및 학교활동 지원을 위해 보조인력 지원 다양화 필요
- 보조인력 확대·증원을 요청하는 현장 요구에 대한 대안 마련
- 특수교육 전공 대학생의 보조인력 활용 등 인력 수급 다양화·전문화 방안 제시
 - 정책연구용역 「특수교육보조인력 배치기준 및 역량강화 연구」(2019.12.10.)

02 필요성 및 목적

- 학교, 교육청, 대학이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을 위해 서로의 필요를 충족하고 협력·상생 도모
 - (학교) 보조인력 미배치 등에 따른 민원 해소,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의 학교 교육활동을 돕는 지속적인 봉사활동 요청
 - (대학) 대학생들의 현장 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된 경험으로써 봉사학습(Service Learning)¹⁾ 추진, 특수교육 현장이해 및 경력교사의 지도를 통한 체계적 봉사활동 통해 예비교사의 특수교육 전문성 신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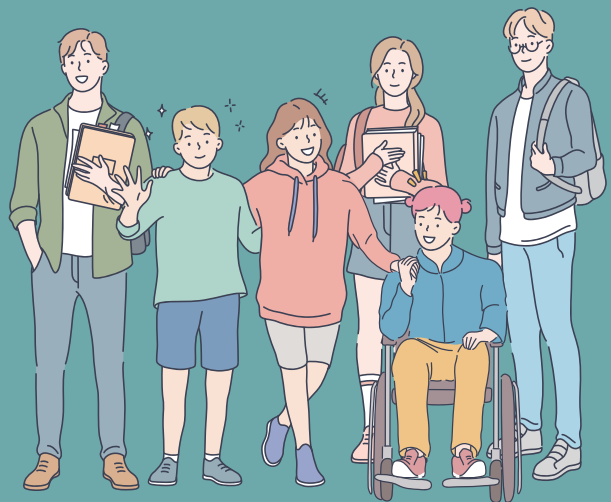
03 관련법령 및 지원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하여 보조인력 제공
- 「2021~2023 경기교육 기본계획」(정책1. 교육의 사각지대 해소)
- 「2021 특수교육 정책추진 기본계획」(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강화)
-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정의), 제20조(지원)에서 교육자원봉사활동의 뜻을 정의하고 실비 지원근거 마련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12조 제1항과 [별표3] 교직과목의 세부기준 및 「2020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교육봉사활동의 의미·기준 안내

1) 체계화 된 봉사를 통해 교육현장의 요구 해결 활동 및 현장 이해도 제고를 통한 봉사자의 배움과 성장이 발생하는 학습



봉사활동 개념 및 내용



01 봉사활동 개념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교육자원봉사와 대학의 교육봉사활동이 연계 된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위한 체계적·전문적 봉사활동 추진

‘대학연계 특수교육 봉사활동(이하 ‘봉사활동’)’은 특수교육 전공 대학생 등 예비교원이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을 대상으로 자발적이며 교육적인 방법으로 전문화된 봉사활동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대학에서 실시하는 ①교육봉사활동¹⁾과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②교육자원봉사활동²⁾이 만나, 학교현장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을 보다 전문적이며 지속적으로 봉사 및 지원 가능하도록 모델 구축

대학연계 특수교육 봉사활동 예비 특수교사가 학교로 찾아 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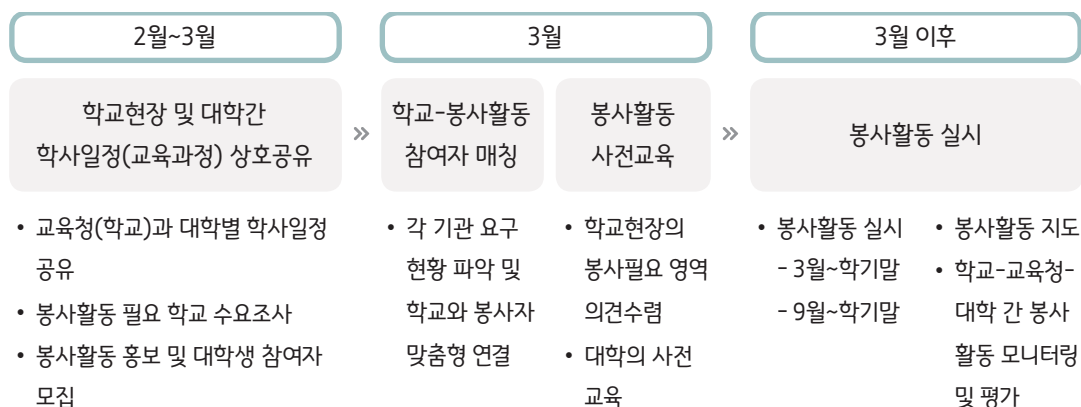
- 1)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으로 예비교사의 소양 함양을 위해 교육실습으로 학점화(2학점, 60시간)
- 2) 마을과 학교의 연계를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중 교육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02 기관별 역할

봉사활동의 원활한 추진 위해 상호 협력하여 사업 수행

구분	주요 역할
도교육청	봉사활동 추진계획 수립,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등 전반적인 지원
교육지원청	참여 학교 수요 조사 및 연결(배정), 참여 학교 지원 및 모니터링, 실비 지급
학교	대학생 봉사자의 봉사활동 활동 관리·지도, 안전한 활동 여건 조성
대학교	봉사활동 참여자 수요 조사, 사전교육, 참여 대학생 지도 및 관리

<봉사활동 제도 운영>



03 봉사자 역할

특수교육 전공자, 예비교원으로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내활동·기본생활 지원, 교수·학습 활동 지원 등 학교생활 전반적 활동에 대한 전문화된 지원

04 봉사활동 목적, 학교현장의 필요성에 기초하여 운영

- 원활한 진행 위해 교육청, 학교, 대학교 간 학사일정 및 교육과정 공유·연계
- 참여자 배치, 봉사활동 실무 지원 위해 교육지원청별로 지원 시스템 마련
- 봉사시간, 주당 봉사 일수, 봉사 기간 등에 대해 학교 필요와 참여 대학생 상황을 고려하여 맞춤형 배치하여 계획성, 지속성 갖춘 봉사활동 운영

05 참여자 지원

봉사활동 참여자에게 실비 지원, 안전한 봉사환경 제공 노력

- (실비지원) 대학생 봉사자에게 1일 15,000원 범위 내 봉사활동비 지원
 - 매 학기 봉사활동 종료 후 지급됨.
- (봉사보험) '1365 자원봉사 종합보험'참여 원칙
 - 대학생은 1365자원봉사포털 회원 가입, 교육지원청은 수요처 등록·관리



1365 포털 가입 및 자원봉사 실적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



1365 자원봉사 포털 가입 시 봉사활동 실적을 누적 관리할 수 있으며, 1365 가입 후 봉사활동 하는 경우 봉사활동 중 사고에 대해 보험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 각종 혜택 증빙자료로 사용도 가능)

06 봉사활동 참여 수칙

- ① 봉사활동 참여자는 사전교육을 받아야 함.
- ②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적 측면을 고려하여 해당 학교(담당교사) 안내에 따라야 함.
- ③ 매주 봉사활동 실적대장 작성 및 지도·확인을 받아야 함.
- ④ 봉사활동을 통해 알게 되는 학생 및 학교의 정보를 보호하여야 함.
- ⑤ 학교현장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통해 자신의 발전을 도모함.

[참고] 봉사활동 실적 목록(표준안)

대학연계 특수교육 봉사활동 실적 관리대장

배치과정	과정(유 / 초 / 중 / 고)		학년		반	
봉사자 현황	성명		생년월일			
	소속학교(학년)		연락처			
특수교육 봉사활동 내용						
회차	봉사일자	봉사 시간			활동내용	담당교사 확인
		시작시간	마침시간	인정시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총 활동 시간		() 시간				

위 와 같이 대학연계 특수교육 봉사활동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작성자(봉사자) : (인)
☐ 감독자(담당교사) : (인)
☐ 확인자(교감) : (인) 필요한 경우 직인 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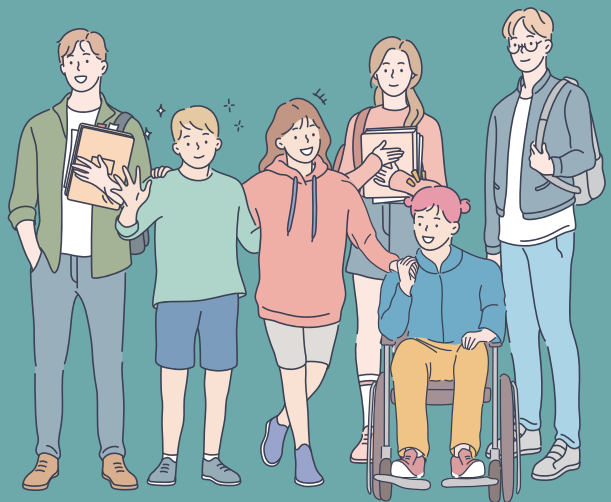
대학 연계
**특수교육
봉사활동**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03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이해와 지원





기본생활·일상생활 지원

01 식사 지원

가. 해당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다르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1

식사 전

- 식사 전에는 손을 씻고 손가락과 개인 물병을 챙겨야 함을 알려줍니다.
- 의사소통이 어려운 특수교육대상학생은 함께 손을 잡고 정해진 자리에 있는 물건을 스스로 챙겨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스스로 할 수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밥 먹기 전에 뭐할까?”라고 물어보고 스스로 생각하고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

줄서기

- 급식실까지 이동하고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게 합니다.
- 이탈 행동이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은 손이나 어깨를 잡고 곁에서 함께 다니도록 합니다.
-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따라 앞사람이 이동함에 따라 조금씩 앞으로 이동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앞사람을 잘 보고 간격이 벌어지지 않도록 또는 앞사람을 앞지르지 않도록 알려줍니다.

3

배식받기

- 음식에 대한 욕심이 지나쳐 음식물을 손으로 집으려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경우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팔꿈치나 손목 부분에 살며시 손을 올려놓아 행동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도전행동이 일어날 때의 지원방법을 담임교사와 협의하여 지도합니다.
- 편식이 심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경우 교사와 협의하여 급식메뉴 중 싫어하는 음식이 나올 때 음식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안심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음식을 배식받아야 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은 아주 적은 양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식판을 들기 어렵거나 이동이 불편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은 식판을 자리에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4

식사하기

- 신체적인 문제로 음식을 먹여주어야 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여 줄 때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입안에 넣고 먹을 때 알맞은 양만큼 음식을 넣어주도록 합니다.
- 너무 큰 음식물은 가위나 식사 도구를 사용하여 잘라서 주도록 합니다.
- 담임교사와 협의를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있다면 해당 음식을 먹지 않도록 지도합니다.
- 식사할 때 돌아다니려고 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있으면 밥을 먹을 때에는 자리에 바르게 앉아서 먹는 것이라는 것을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편안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식사하면서 “00는 스스로 잘 먹는구나. 골고루 잘 먹는구나. 맛있게 먹는구나, 최고야~!” 등의 칭찬을 통해 밥 먹는 시간이 즐거운 시간임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손가락으로 액체 상태의 음식을 먹다가 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몸을 숙여 입을 식판 가까이 대고 먹도록 알려줍니다.
- 학생의 소근육 발달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식사 도구가 다릅니다. 운동능력의 발달 정도에 따라 담임교사와 협의하여 특수한 도구 사용, 음식 농도, 크기 등을 조절하여 제공합니다.
- 식사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밥을 먹으려고 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은 식사 도구 사용이 미숙해서 손으로 먹는게 더 편하기 때문에 식사 도구의 사용 방법을 알려주고 반복적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식사 도구 사용이 미숙한 경우 손목이나 팔을 잡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식사 도구 사용을 지원할 때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잘 쓰는 손 쪽(오른손잡이는 오른쪽)에 앉아 지도하는 것이 편합니다.
- 식사 자세는 음식 소화와 식사 속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른 자세로 식사하게 합니다.

5

정리하기

- 남은 음식을 식판 한 칸에 모읍니다. 그리고 음식물, 플라스틱병, 뼈 등은 분리 배출하도록 합니다.
- 퇴식구에 사람이 많으면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 음식물, 손가락, 젓가락, 식판을 정해진 자리에 정리합니다.
- 거울을 보고 입 주변을 확인하고 휴지나 물을 사용하여 닦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식사 후에는 ‘잘 먹었습니다.’ 인사를 한 뒤 자신의 수저통과 개인 물병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림 1〉 식사 시 지원 방법 순서도

나. 식사 지원 시 특수교육대상학생 유형별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표 1> 장애 유형별 식사 지도 유의사항

유형	특성 및 지도 유의사항
지체 장애	· 장애 정도에 따라 음식의 양, 크기, 식사 시간 등을 조절해야 하므로 교사와 식사 여부와 양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 혀와 씹기 움직임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촉감의 음식을 제공하고, 음식을 작게 잘라 제공하거나 음식의 양을 적게 하여 잘 씹어 먹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음식 소화 및 긴 식사 시간에 오는 피로를 줄이기 위해 바른 자세로 앉아 씹고 삼킬 수 있도록 합니다. · 비정상적인 근육 긴장도와 제한된 신체적 활동으로 인해 변비가 생기기 쉬우므로 가정에서 별도의 유동식이나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입 안에 음식을 주었을 때 의도치 않게 갑자기 입을 세게 다무는 반응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는 비자발적인 현상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간질 장애	· 경련이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영양적인 문제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복용하는 항경련제의 부작용과 음식물의 상호작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 식사 중 경련이 일어나는 경우, 식사를 즉시 중단하고 몸을 옆으로 돌려준 후 입안의 음식물이 남아 있다면 기도를 막지 않도록 꺼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근육 긴장도가 낮은 특수교육대상 학생	· 식도가 막히는 일이 생길 위험도 있고, 과도하게 음식물을 입에 많이 넣는 경우 씹기가 어려워지고, 이로 인하여 구토 반응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중· 고도 비만 특수교육대상 학생	· 운동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식탐이 많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이라면 중· 고도 비만이 되기 쉬우므로 교사와 상의하여 음식물을 조절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폐성 장애	· 음식물의 색, 생김새, 맛, 식감 등에 따라 특정 음식에 대해 호불호가 강하여 지나치게 선호하거나 지나치게 거부하기도 합니다. · 한두 가지 음식만 고집하는 경우, 교사에게 이 사실을알리고, 특정 음식물에만 집착하지 않도록 행동지원 계획에 따라 지도합니다.
중도·중복 장애	· 중도·중복장애의 경우 장애로 인하여 음식의 종류나 농도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급식이 아닌 별도의 음식을 먹거나 특수한 식사 도구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이를 교사에게 알리고 가정과 연계한 지도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02 용변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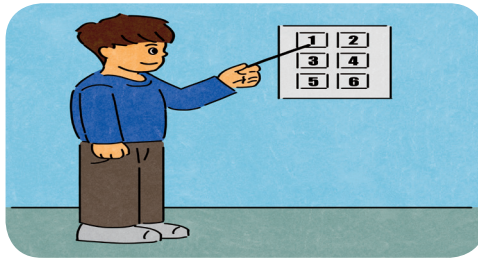
가. 용변 지원 원칙

- 용변 지원은 특수교육 보조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수행에서는 어려움 있음을 설문 결과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 용변 지원의 경우 장애의 특성과 정도에 따라 지원해야 할 내용, 방법, 범위는 개인별로 다르므로 필요한 지원에 대해서는 담임교사와 충분히 의논한 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특수교사에게 정보를 받아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화장실 이용 부분에 대한 현행수준, 배설 패턴, 배변 요구 신호, 지원 정도, 학부모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특성에 맞게 지원합니다.
- 장애가 있으니 모두 다 도와주어야겠다는 것보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기다려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 되도록 쉬는 시간에 용변 지원을 합니다. 그러나 용변 훈련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경우는 교사와 상의 하여 스스로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 화장실을 사용해야 합니다. 용변 훈련을 위해서는 개별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용변 일정을 파악하여 지원해야 합니다.

나. 용변 지원 방법

- 화장실 사용 전 :
 - 화장실이라는 공간에 함께 들어가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이 화장실에 친근함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면 조금 더 친숙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남자와 여자가 사용하는 화장실이 다름을 알려줍니다.
 -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 “화장실”이란 단어를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직접 말할 수 있도록 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수준에 따라 단어 또는 문장으로 정확히 말하도록 합니다. 발화가 어려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경우 손짓이나 몸짓, 그림 카드를 사용하도록 약속을 정합니다. 표현 방법이 크지 않을 수도 있으니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행동을 잘 관찰합니다.
- 화장실을 사용할 때 :
 - 학교 일과 내 규칙적인 시간(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에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합니다.
 - 대·소변 후 화장지를 사용하여 뒤처리를 도울 때도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만큼 기회를 제공하고 마지막에 깨끗하게 도와줍니다.
 - 화장지를 사용한 후에는 정해진 곳에 바르게 버리도록 합니다.
 - 용변을 다 본 후에 옷을 입고 물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용변을 다 본 뒤에는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함을 알려줍니다.
 - 아래의 그림과 같이 화장실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순서를 구체적인 그림 카드를 이용하여 반복해서 지도해주면 효과적입니다.

01



● ● ●
규칙적인 시간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화장실을 이용하기

02



● ● ●
화장실 문 노크하기

03



● ● ●
용변 후 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물티슈나 여성용품은
휴지통에 버리기

04



● ● ●
용변 후
변기 물 내리기

05



● ● ●
손 깨끗하게 씻기

<그림 2> 특수교육대상학생 화장실 이용하는 방법 그림 순서도.

다. 용변 지원 시 고려사항

- 먼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대변과 소변이 일정한 형태로 조절되어야 합니다. 변기에 앉히는 훈련 이전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배설 형태가 규칙성을 띠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소변과 대변을 보는 시간을 일주일 정도 기록하면서 일정한 간격에 대해 파악합니다.
- 화장실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지, 옷 입고 내리기가 가능한지 알아봅니다.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으면 사진이나 신호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휠체어를 타고 있거나 이동이 불편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은 화장실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직접 도와주셔야 합니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신체에 맞는 보조도구를 이용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며 걷기가 가능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변기 옆 지지대를 잡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신체를 잡아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 교실에서 실수했을 때는 다른 친구들이 놀리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실수했음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해줍니다.

라. 대·소변 실수

- 대·소변을 실수하는 원인(심리적으로 불안할 때, 하기 싫은 과제를 회피하기 위해, 의사 표현능력이 부족해서, 화가 났을 때 등)은 매우 다양한데, 원인에 따라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지므로 교사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1

새 옷과 준비물 준비

- 갈아입을 옷과 화장지 또는 물티슈, 비닐봉지를 준비합니다.
-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면 더 좋지만 물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물티슈를 준비합니다.

2

화장실 이동

- 다른 사람의 시선이 차단되는 장소로 특수교육대상학생과 이동합니다.
- 보통 화장실의 장애인 전용 칸이 유용합니다.

3

하의 벗기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하의를 벗겨 비닐봉지 안에 담습니다.
- 이때 특수교육대상학생은 세워두기보다 변기에 앉게 하는 것이 좋지만 신체에 이물질이 많이 묻었을 경우는 손잡이나 벽을 잡고 서 있도록 도와줍니다.
- 하의에 이물질이 많을 경우는 변기에 털어 버리도록 합니다.

4

새 옷 입기

- 준비한 새 옷을 입힙니다. 앉아서 입는 것이 편한 특수교육대상학생, 서서 입는 것을 편한 특수교육대상학생 등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성향에 따라 변기 뚜껑을 덮어 앉히거나 손잡이를 잡고 서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5

주변 정리

- 이물질이 묻은 옷을 비닐봉지에 담고 냄새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꼭 묶은 후 주변을 정리합니다.

<그림 3> 특수교육대상학생 대·소변 실수 후 지원 방법

03 착·탈의 지원

- 입고 벗기 쉬운 옷(타이트한 옷보다 약간 큰 사이즈의 옷, 지퍼보다는 고무줄 바지, 단추보다는 지퍼 등이 달린 옷 등)과 신발(끈 운동화보다는 찍찍이 운동화)부터 시작하여 차츰차츰 단계를 높여 지도합니다.
-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따라 지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교사와 상의하여 착·탈의 지도 방법 및 순서를 정하고 일관된 방법으로 지도합니다.
- 자신이 하는 활동을 볼 수 있게 거울 앞에서 하면 좋습니다.
- 균형에 문제가 있는 지체장애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경우에는 서서 하는 것보다 (옆으로)누워서 할 수도 있고 구석에 앉아서 하거나 구석 의자에 앉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수행하기 쉽게 지퍼에 링을 달기, 끈 매는 신발보다는 접착식으로 되어있는 신발, 바로 눌러서 신을 수 있는 신발이 좋습니다.

04 청결 및 위생 지원

-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필요한 청결 및 위생 영역은 손 씻기, 양치질, 세수하기, 입 주변 깨끗하게 닦기, 머리카락 정돈하기, 깨끗한 의복 관리하기 등이 있습니다.
- 모든 활동을 지원하기보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정도는 스스로 하고 점차 지원의 강도를 줄이면서 그 기능을 학습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모든 활동을 스스로 하도록 지원합니다.
- 교사에게 지원의 범위와 과제 분석 단계, 방법 등을 상의한 후 지원합니다.
- 침을 많이 흘리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이나, 옷이 쉽게 오염되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경우 여벌의 옷과 손수건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얼굴이나 손이 쉽게 더러워지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지원할 때는 물티슈, 수건 등을 미리 준비해두면 편리합니다.
- 규칙적으로 씻고, 정리하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05 일상생활 지원

가. 인사하기

- 학교에서 선생님을 만났을 때, 친구들을 만났을 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거나 손을 흔들어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발화가 되는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은 한 음절씩 인사말을 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스스로 인사를 할 수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는 선생님이 먼저 인사를 건네줍니다.
- 통합학급에서도 친구들에게 먼저 인사를 해 볼 수 있도록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작은 소리로 “친구한테 인사해볼까?”라고 미리 얘기해주면 좋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인사를 해 보는 경험을 통해 인사하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기도 합니다.
- 일과 중 인사를 해야 하는 시간에 꼭 인사를 해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나. 물건 정리하기

- 학교에서 신발 정리할 때, 가방 정리할 때, 색연필이나 크레파스 등 자기 물품 정리할 때, 이 닦고 칫솔과 양치컵 정리할 때, 놀이 후 놀잇감 정리할 때가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학생별로 지원해야 하는 부분이 다르므로 교사와 협의하여 지원 정도를 파악한 뒤 도와줄 부분과 스스로 할 부분을 구분하여 도와줍니다.
- 자기 물건 알기→물건을 정리하는 장소 알아보기→자신의 물건을 정리하는 방법 알아보기→자기 물건 찾기→스스로 자기 물건 정리하기 순으로 지도합니다.
- 특수교육대상학생 중에는 스스로 자기 물건을 정리할 수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들도 있지만 정리하는 위치 파악이 어렵거나 사용한 뒤에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를 모르거나 정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도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특성과 상황에 맞춰 도와줍니다.

다. 장소에 따른 지원

장소	지도 방법
교실, 복도, 계단, 난간	· 교실이나 복도에서 뛰지 않도록 지도합니다. · 여러 개의 계단을 한 번에 오르지 않고, 하나씩 오르도록 하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난간을 잡고 이동하도록 지도합니다. ·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움직이도록 하고 우측통행을 지킴으로써 지도합니다. · 이동 중에 장난을 치지 않도록 지도합니다. · (예) 친구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기, 술래잡기, 계단 난간 타고 내려오기 등 · 교실 창문 밖으로 물건을 던지지 않도록 하고 고개나 몸을 내밀지 않도록 지도합니다. · 창틀에 올라가거나, 창틀에 앉지 않도록 지도합니다. · 교실 책상 위에 앉지 않도록 지도합니다. · 교실에서 뛰어다니지 않도록 지도합니다. · 위험한 물건(뾰족한 연필, 칼, 가위, 조각도 등)으로 장난치지 않도록 지도합니다.
화장실, 정수기	· 화장실, 정수기를 이용할 때는 한 줄로 서서 이용하도록 지도합니다. · 세면대와 정수기 물로 장난치지 않도록 지도합니다. · 정수기에 침을 뱉거나 이물질 버리지 않도록 지도합니다.
승강기	· 승강기 안에서 뛰거나 장난치지 않도록 지도합니다. · 승강기 버튼을 누르는 장난을 치지 않도록 하고 승강기 문에 기대거나 강제로 열지 않도록 지도합니다. · 승강기를 타고 있을 때 고장이 난 경우 비상 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화재 대피 시에는 승강기를 이용하지 않도록 지도합니다. · 승강기를 타거나 내릴 때 승강기 바닥을 잘 확인하고 탈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장애유형별 학습 지원

01 지적장애 학생을 위한 학습지원

지적장애 학생들이 교실 안, 넓게는 학교 안에서 학습하고,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적인 수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가. 인지적 특성에 따른 지원

- 천천히, 또박또박 이야기해주고 답을 재촉하지 않습니다.
- 대화 시, 학생이 답할 때까지 기다려주도록 합니다.
- 복잡한 문장이 아닌 단순한 문장으로 표현해주도록 합니다.
-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학생이 더욱 쉽게 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소음이나 자극이 많지 않은 안정적인 분위기를 제공해주도록 합니다.

나. 언어적 특성에 따른 지원

- 시청각 자료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 이야기와 함께 그림이나 사진을 사용하여 이해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그림책을 보여주며 자주 읽어주어 추상적인 상황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구체적인 경험으로 얻기 힘든 추상적인 어휘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 기회를 제공합니다.
- 그림이나 사진 등으로 학생의 의사나 감정을 확인하거나 할 일의 순서를 전달합니다.
-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데 제한을 가질 때에는 보완·대체 의사소통 방법을 활용합니다.
- 학생이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을 때, 이를 문제 행동으로 단정 짓지 말고 학생이 자신의 요구를 표현하기 어려워 나타내는 행동으로 이해합니다.

다. 사회-행동적 특성에 따른 지원

- 학생의 능력에 적합한 과제를 주어 성공을 경험하게 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주도록 합니다.
- 학생이 무언가를 말할 때는 무시하지 말고 “그래? 그렇구나!” 등 수용적인 언어로 답하고 학생이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 어린 칭찬을 자주 해주도록 합니다.
- 성급함과 조바심에 학생의 요청이 있기 전에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학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의 빈도를 낮추는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급적 학생이 자신의 요구와 행동에 대해 자각하고, 스스로 표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도움을 요청할 때 지원해주도록 합니다.
- 학교 내에서 또래와 직접 어울릴 기회를 주어 사회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습니다.

02 자폐성장애 학생을 위한 학습지원

자폐성장애 학생들이 교실 안, 넓게는 학교 안에서 학습하고,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적인 수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가. 언어-의사소통적 특성에 따른 지원

자폐성장애 학생들이 습득한 기술을 일상생활 속 주어진 환경에서 어떻게 기능적으로 사용하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합니다.

- 학생의 현행 발달 수준과 기능적인 수준을 근거로 합니다.
- 자연적인 상황에서의 기능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강조합니다.
- 상대방과의 균형을 이룬 상호적인 의사소통을 촉진합니다.
- 의사소통의 대상자를 함께 교육하도록 합니다.
- 행동 문제를 교정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통합하여 운영합니다.

나. 사회-행동적 특성에 따른 지원

- 자폐성장애 학생의 행동 중에서 우선적으로 지도해야 할 부적응 행동의 우선 순위를 정하도록 합니다.
- 왜 부적응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의도를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하도록 합니다.
- 적절한 행동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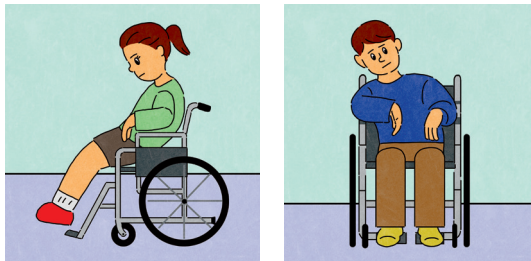
다. 통합교육 지원

- 자폐성장애 학생의 개별적 장애 특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개별화교육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 통합 환경의 사회적 맥락과 활동이 자폐성장애 학생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통합 환경 내의 성인과 또래들이 적절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 가능한 한 초기에 통합의 경험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 자폐성장애 학생의 비언어적 행동을 해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논리적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문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짧고 간단한 대화를 통해 의사소통을 명확하게 합니다.
- 필요하다면 그림이나 사진 등을 활용하도록 합니다.
- 자폐성장애 학생이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로 설명합니다.
- 반복하여 설명하고 반복하여 연습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 활동을 세분화하여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의 순서대로 해결하도록 지원합니다.
- 필요한 경우, 사진이나 비디오 등 시각적, 청각적 자료를 함께 활용하여 학생의 이해를 돕도록 지원합니다.

03 지체장애 학생을 위한 이동지원

가. 휠체어¹⁾



<휠체어 바르지 않은 자세>

- 휠체어는 의자에 바퀴가 달려있어 이동 뿐 아니라 앉는 자세 유지에 도움을 주는 기기입니다. 움직이는 동력에 따라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로 나뉘며, 뇌병변장애 영유아를 위해서는 유모차형 휠체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손잡이나 발판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고, 접거나 펼 수 있는 기능이 가능한 제품들도 있습니다.
- 휠체어 사용자가 말을 할 수 없을 때 사용자가 느끼는 통증 파악하기
휠체어 사용자가 말을 할 수 없을 경우, 사용자가 통증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 교육 보조인력은 그들이 하는 일이 사용자의 통증을 발생시키거나 증가시키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통증을 느끼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휠체어 서비스 교육교재 중급단계

우는 것, 소리지르는 것, 땀을 흘리거나 안절부절 못할 수 있다.
 평가자의 손을 밀치거나 손길을 피하려 할 수 있다.
 움직임에 저항하거나 특정 자세를 유지하는 것을 못할 수 있다.
 얼굴을 찌푸리거나 찡그리는 표정을 지을 수 있다.

<체크리스트 : 휠체어가 안전하고 사용할 준비가 되었나요?>

자세유지장치를 포함한 휠체어 전체	확인
자세유지장치가 단단히 고정되어있다.	
날카로운 모서리가 없다	
손상되거나 굵힌 부분이 없다	
휠체어가 일직선으로 똑바로 간다.	
앞 캐스터 휠	
잘 돌아간다.	
포크를 안 건들이고 돈다.	
볼트가 꼭 조여있다.	
앞 캐스터 배럴	
캐스터 포크가 잘 돌아간다.	
뒷바퀴	
잘 돌아간다.	
차축 볼트가 조여져 있다.	
타이어에 올바르게 공기를 넣었다. (엄지로 누르면 5mm 이하로 눌린다.)	
뒷바퀴 추진장치가 안전하다.	
브레이크	
제대로 작동한다.	
발 받침대	
발 받침대가 단단히 붙어 있다.	
프레임	
접이식 휠체어- 휠체어가 쉽게 접히고 펴진다.	
접이식 등받이 휠체어- 등받이가 쉽게 접히고 펴진다.	
방석	

방석이 덮개 안에 올바르게 있다.	
방석이 휠체어 위에 올바르게 있다.	
방석 덮개 천이 꼭 조이나 너무 조이진 않는다.	
만약 휠체어가 고체 좌석이라면 방석이 고체 좌석을 완벽하게 덮고 있다.	

다. 휠체어 조작요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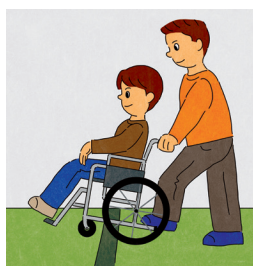
- 정지 : 휠체어를 움직이지 않는 때는 평평한 지면에 두며 브레이크를 항상 잠궜 두어야 합니다. 특히 특수교육 대상자가 내리고 탈 때에는 브레이크가 잠겨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익혀야 합니다. 브레이크는 보통 3단으로 나뉘어 있는데, 2단 브레이크는 경사로를 내려갈 때나 미끄러운 바닥을 이동할 때 사용합니다.
- 접기 : 발판을 젖힌 후 의자 바닥천의 가운데 양쪽 모서리를 잡고 들어올립니다.
- 펴기 : 한쪽 바퀴만 약간 들어 기울인 후, 손바닥으로 지면에 닿아있는 바퀴쪽 의자 바닥의 구석 부분을 누릅니다. (양바퀴가 지면에 닿아 있는 상태에서 의자 바닥을 누르면 바퀴와 지면의 마찰로 인해 잘 펴지지 않습니다.)

라. 상황 별 사용방법

- 휠체어 등받이에 붙여 앉히기
 - 휠체어 브레이크를 잠급니다.
 - 특수교육대상자의 두 손을 배 위에서 포개어 접게 합니다.
 - 휠체어 뒤에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겨드랑이로 두 팔을 깊숙이 넣어 포개진 손목을 잡고 등받이 쪽으로 당겨 줍니다.
- 경사가 있는 곳에서의 이동



<경사가 있는 곳에서 내려갈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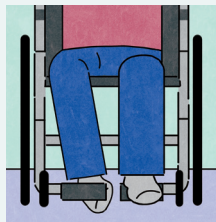
<턱 통과시>

2) 보건복지부 개정 2판_요양보호사 표준교재(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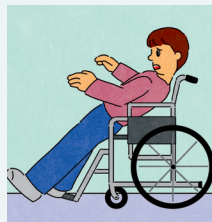
- 오를 때 : 가급적 낮은 자세로 밀어 올리며 경사가 급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체중이 무거울 경우 휠체어를 비스듬히 놓은 후 브레이크를 잠그고 잠시 휴식을 취합니다. 경사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 지그재그로 오릅니다.
- 내려갈 때 : 일반적으로 휠체어를 뒤로 돌려서 브레이크를 중간에 놓고 뒷걸음으로 내려가거나 앞바퀴를 올리고 휠체어를 눕혀 내려갑니다. 경사로가 휘었을 경우 손을 뒤로하여 휠체어 손잡이를 잡고 앞을 보면서 내려갑니다.
- 턱 통과 시
 - 높은 턱일 때 휠체어의 누름대로 발로 눌러 앞바퀴를 턱에 걸리지 않게 하고 뒷바퀴를 턱에 대고 손잡이를 들어올립니다. 낮은 턱일 때 휠체어를 뒤로 돌려 뉘인 후 천천히 끌어당깁니다.
- 엘리베이터 타고 내리기
 - 반드시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혼자서 휠체어 조작이 가능하다면 문이 닫히지 않도록 열림 단추를 눌러주어야 합니다. 문이 닫혀 대상자의 손이나 발이 끼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TIP 휠체어 안전하게 지원하기

- 지체장애 학생의 경우 발판위에 두 발을 올리지 못하고, 발판에서 떨어져 휠체어에 말려 들어갈 뻔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동 중 두 발이 발판의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발판 미 부착>



<앞쪽으로 미끄러지는 모습>



<급 브레이크를 잡아 떨어지는 모습>

- 휠체어를 펼칠 때, 손가락이 휠체어 공간에 끼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지체장애 학생의 경우 엉덩이가 앞쪽으로 미끄러져 휠체어에서 걸터앉는 자세가 되어 떨어질 뻔한 경우가 있습니다. 체격에 맞는 휠체어의 이용이나 쿠션, 패드 등을 사용하여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고려해야 합니다.
-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아 특수교육대상자가 앞쪽으로 떨어질 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 멀리서부터 감속해야 합니다.

04 응급처치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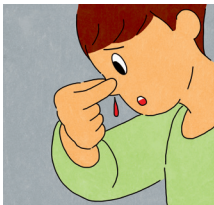
TIP 응급처치 요령

적절하지 않은 응급처치는 응급환자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니 먼저 119에 연락한 후(위급상황이라 판단될 경우) 지시에 따라 응급처치를 하여야 하고 평소 응급처치 방법을 잘 익혀두어야 합니다.

가. 응급처치³⁾

- 화상을 입었을 때
 - 화상 부위를 흐르는 찬물 속에 넣어 적어도 10분 동안 담가야 합니다.
 - 화상 부위의 상처가 부풀어 오르기 전에 반지, 시계, 벨트 또는 꼭 끼는 옷을 조심스럽게 제거해야 합니다.
 - 상처부위는 깨끗하고 가능하면 멸균 처리된 보푸라기가 없는 거즈로 덮어야 합니다.
 - 얼굴에 난 화상은 환자가 숨을 쉴 수 있도록 구멍을 낸 거즈를 덮습니다.
 - 물집은 터뜨리지 말고 화상부위에 딱 붙어 있는 물질들은 떼어내지 않도록 합니다.
 - 로션을 바르거나 연고, 기름 같은 것도 바르지 않습니다.
 - 환자를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나. 코피가 났을때의 행동 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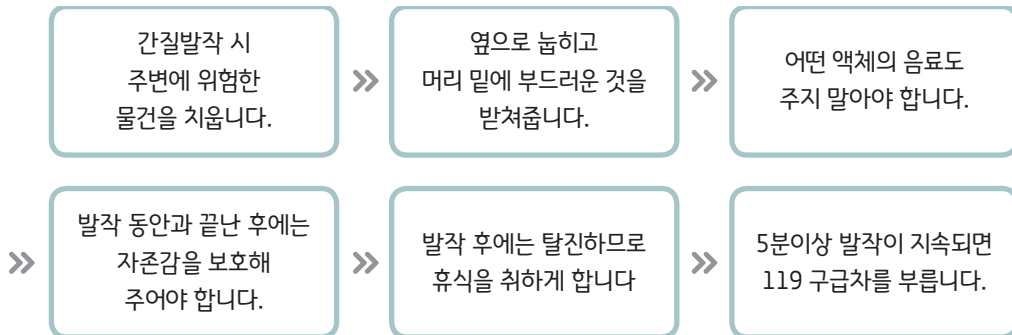
- 머리를 앞으로 숙입니다.
- 코의 움푹 들어간 부분을 엄지와 검지로 눌러줍니다.

다. 눈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의 행동요령

- 물 속에 얼굴을 담그고 눈을 깜빡입니다.
- 이물질이 들어간 눈을 밑으로 가게 한 후 물로 씻어냅니다.
- 눈을 비비거나 만지지 않아야 하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 <https://www.mois.go.kr/> (행정안전부 안전 배움터)

라. 간질발작 시 행동요령⁴⁾



마. 칼이나 유리에 베였을 때

- 피가 나는 부위를 높게 듭니다.
- 피가 나는 부위를 깨끗한 천이나 손수건 등으로 꼭 누릅니다.
- 상처에 박힌 이물질을 제거할 경우 과다 출혈 등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억지로 빼지 않고 병원へ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바. 이물질로 기도가 막혔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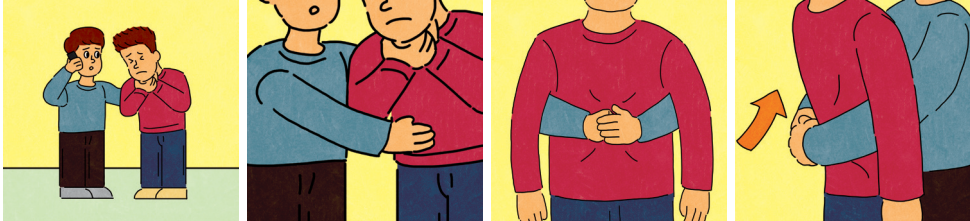
- 기침 또는 말을 할 수 있는지, 숨을 쉴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 아래 그림과 같은 하임리히법을 실시합니다.

※ 영아의 하임리히법 응급조치



4) 국립특수교육원(2018) 장애학생 양육지원가이드북(지체장애)

※ 하임리히법 응급조치



상태확인후 119 신고 → 자발적인 기침 유도, 기침을 못할 경우 밀어내기 시도 → 배꼽과 명치 중간에서 오른 손으로 왼 주먹을 감싸고 → 안 쪽에서 위로 강하게 밀어냄

TIP 입안에서 이물질이 보이면 즉시 손가락으로 꺼내는 것이 좋은가요?⁵⁾

이물질을 손가락으로 잡으려 하지 말고 손가락 끝으로 훑어내는 방법이 좋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이물질을 잡으려고 하다가는 자칫 이물질을 안쪽으로 밀어 넣을 수 있으므로 손가락을 입안의 측면으로 깊숙이 넣은 다음에 밖으로 훑어내는 방법이 바람직합니다. 이물질이 눈에 잘 보이지 않거나 깊숙한 곳에 있어 꺼내기 힘든 경우에는 잘못 건드려 오히려 깊숙한 곳으로 밀어 넣을 수 있으므로 기침을 유도하거나 하임리히법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TIP 알아두면 좋아요

부산시 초등 자폐학생 초코파이 먹다 질식사

부산의 한 주택에서 12살 A군이 초코파이를 먹다 질식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자폐 1급인 A군은 초코파이 1개를 통째로 입에 넣다가 기도가 막혀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과자나 사탕을 먹다 기도가 막히면 아이들은 기침을 하거나 소리를 내는데 입안의 이물질이 보인다면 고개를 옆으로 돌리게 해 빼내면 되지만 입 안에 보이지 않는 경우 절대 손가락을 넣어 무리하게 빼려고 하면 안된다. 반드시 하임리히법을 시행하여 음식물을 튀어나오게 해야 한다.

5) 국립특수교육원(2018) 장애학생 부모 양육 지원 가이드북-지체장애(제5권)

사. 심폐소생술⁶⁾(CPR)

반응의 확인 - 119신고 - 호흡확인 - 가슴압박 30회 시행 - 인공호흡 2회시행 - 가슴 압박과 인공 호흡의 반복
- 회복자세



- 반응의 확인
현장의 안전을 확인한 뒤에 환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큰 목소리로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본다. 의식이 있다면 환자는 대답을 하거나 움직이거나 또는 신음소리를 내는 것과 같은 반응을 나타낸다. 반응이 없다면 심정지의 가능성이 높음
- 119신고
환자의 반응이 없다면 즉시 큰 소리로 주변 사람에게 119 신고를 요청한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경우에는 직접 119에 신고
- 호흡확인
쓰러진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로 관찰하여 호흡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환자의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이라면 심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
- 가슴압박 30회 시행
환자를 바닥이 단단하고 평평한 곳에 등을 대고 눕힌 뒤에 가슴뼈(흉골)의 아래쪽 절반 부위에 각지를 낀 두 손의 손바닥 뒤꿈치를 댄다. 손가락이 가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양팔을 쭉 편 상태로 체중을 실어서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가슴을 압박, 압박된 가슴은 완전히 이완되도록 한다. 가슴압박은 성인에서 분당 100~120회의 속도와 약 5cm, (소아 4~5cm)로 강하고 빠르게 시행한다. 하나, 둘, 셋 서른하고 세어가면서 규칙적으로 시행하며 환자가 회복되거나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지속한다.

6) <https://www.mois.go.kr/>(행정안전부 안전 배움터)

- 인공호흡 2회 시행

환자의 머리를 젖히고, 턱을 들어 올려 환자의 기도를 개방시킨다. 머리를 젖혔던 손의 엄지와 검지로 환자의 코를 잡아서 막고, 입을 크게 벌려 환자의 입을 완전히 막은 후 가슴이 올라올 정도로 1초에 걸쳐서 숨을 불어넣는다. 숨을 불어넣을 때에는 환자의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지 눈으로 확인한다. 숨을 불어넣은 후에는 입을 떼고 코도 놓아주어서 공기가 배출되도록 한다. 인공호흡 방법을 모르거나, 꺼리는 경우에는 인공호흡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가슴압박만을 시행한다(가슴압박 소생술).

-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의 반복

이후에는 30회의 가슴압박과 2회의 인공호흡을 119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반복해서 시행한다. 다른 구조자가 있는 경우에 한 구조자는 가슴압박을 시행하고, 다른 구조자는 인공호흡을 맡아서 시행하며, 심폐소생술 5주기(30:2 가슴압박과 인공호흡 5회)를 시행한 뒤에 서로 역할을 교대한다.

- 회복자세

가슴압박 소생술을 시행하던 중에 환자가 소리를 내거나 움직이면, 호흡도 회복되었는지 확인한다. 호흡이 회복되었다면, 환자를 옆으로 돌려 눕혀 기도(숨길)가 막히는 것을 예방한다. 그 후 환자의 반응과 호흡을 관찰해야 한다. 환자의 반응과 정상적인 호흡이 없어진다면 심정지가 재발한 것으로 신속히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다시 시작한다.

MEMO

MEMO



발행일 2021년 3월

발행처 경기도교육청

인쇄처 Design 세창 1544-1466

이 책의 저작권은 경기도교육청에 있으며 일부 또는 전부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